

기출문제를 풀기 전 알아야 할 것

『PSAT 기출문제는 회독수를 늘릴 생각을 해선 안된다.』

→ 한번 풀 때, 최대한의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생각하자

→ 자주 풀게 되면, 문제가 머릿속에 남게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알아갈 수 없게 된다.

『한번에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 스스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어떠한 것을 중점에 둘것인지,

→ 어떤식으로 풀지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한다.

『만약 관통력을 이용한다면』

→ 자료를 볼 때, 통일된 습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 보기를 볼 때, 관점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 만약, 관(점)과 통(일된 습관)이 적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년도의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추가적으로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 더하기, 빼기 연습, 그리고 곱셈값 암기와 소인수 분해를 연습하자.

계산속도 UP을 위한 숫자 암기

다음의 빈칸을 채우고, 암기해보자.

×2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20	20	40	30	60	40	80	50	10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2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120	70	140	80	160	90	18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3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30	20	60	30	90	40	120	50	15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3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180	70	210	80	240	90	27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다음의 빈칸을 채우고, 암기해보자.

×4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40	20	80	30	120	40	160	50	20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4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240	70	280	80	320	90	36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5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50	20	100	30	150	40	200	50	25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5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300	70	350	80	400	90	45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구구단	2	3	4	5	6	7	8	9
2	4	6	8	10	12	14	16	18
3	6	9	12	15	18	21	24	27
4	8	12	16	20	24	28	32	36
5	10	15	20	25	30	35	40	45
6	12	18	24	30	36	42	48	54
7	14	21	28	35	42	49	56	63
8	16	24	32	40	48	56	64	72
9	18	27	36	45	54	63	72	81

11~19의 제곱수	
11×11	121
12×12	144
13×13	169
14×14	196
15×15	225
16×16	256
17×17	289
18×18	324
19×19	361

분수	소수	%값	배율
$\frac{1}{2}$	0.500	50.0%	2배
$\frac{1}{3}$	0.333	33.3%	3배
$\frac{1}{4}$	0.250	25.0%	4배
$\frac{1}{5}$	0.200	20.0%	5배
$\frac{1}{6}$	0.166	16.6%	6배
$\frac{1}{7}$	0.143	14.3%	7배
$\frac{1}{8}$	0.125	12.5%	8배
$\frac{1}{9}$	0.111	11.1%	9배
$\frac{1}{10}$	0.100	10.0%	10배
$\frac{1}{11}$	0.091	9.1%	11배
$\frac{1}{12}$	0.083	8.3%	12배
$\frac{1}{13}$	0.077	7.7%	13배
$\frac{1}{14}$	0.071	7.1%	14배
$\frac{1}{15}$	0.067	6.7%	15배
$\frac{1}{16}$	0.063	6.3%	16배
$\frac{1}{17}$	0.059	5.9%	17배
$\frac{1}{18}$	0.056	5.6%	18배
$\frac{1}{19}$	0.053	5.3%	19배
$\frac{1}{20}$	0.050	5%	20배

문 1. 다음 <표>는 '갑' 연구소에서 제습기 A ~ E의 습도별 연간소비전력량을 측정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제습기 A ~ E의 습도별 연간소비전력량
(단위: kWh)

습도 \ 제습기	40%	50%	60%	70%	80%
A	550	620	680	790	840
B	560	640	740	810	890
C	580	650	730	800	880
D	600	700	810	880	950
E	660	730	800	920	970

<보 기>

- ㄱ. 습도가 70%일 때 연간소비전력량이 가장 적은 제습기는 A이다.
- ㄴ. 각 습도에서 연간소비전력량이 많은 제습기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습도 60%일 때와 습도 70%일 때의 순서는 동일하다.
- ㄷ. 습도가 40%일 때 제습기 E의 연간소비전력량은 습도가 50%일 때 제습기 B의 연간소비전력량보다 많다.
- ㄹ. 제습기 각각에서 연간소비전력량은 습도가 80%일 때가 40%일 때의 1.5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70%일 때 A의 값은 790으로 가장 작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가중평균의 응용)

$\frac{80\%}{40\%}$ 의 값은 1.5배 이상인가?

$$E\left(\frac{970}{660} = \frac{900+70}{600+60} < 1.5\right) \rightarrow 1.5\text{배 이하다.}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단순 확인)

습도 40%의 제습기 E = 660

습도 50%의 제습기 B = 640

E제습기가 더 많다. → 옳다.

①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2. 다음 <표>는 통신사 '갑', '을', '병'의 스마트폰 소매가격 및 평가점수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통신사별 스마트폰의 소매가격 및 평가점수
(단위: 달러, 점)

통신사	스마트폰	소매 가격	평가항목					종합 품질 점수
			화질	내비 게이션	멀티 미디어	배터리 수명	통화 성능	
갑	A	150	3	3	3	3	1	13
	B	200	2	2	3	1	2	()
	C	200	3	3	3	1	1	()
을	D	180	3	3	3	2	1	()
	E	100	2	3	3	2	1	11
	F	70	2	1	3	2	1	()
병	G	200	3	3	3	2	2	()
	H	50	3	2	3	2	1	()
	I	150	3	2	2	3	2	12

* 스마트폰의 '종합품질점수'는 해당 스마트폰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합임.

<보 기>

- ㄱ. 소매가격이 200달러인 스마트폰 중 '종합품질점수'가 가장 높은 스마트폰은 C이다.
- ㄴ. 소매가격이 가장 낮은 스마트폰은 '종합품질점수'도 가장 낮다.
- ㄷ. 통신사 각각에 대해서 해당 통신사 스마트폰의 '통화성능' 평가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통신사별로 비교하면 '병'이 가장 높다.
- ㄹ. 평가항목 각각에 대해서 스마트폰 A ~ I 평가점수의 합을 계산하여 평가항목별로 비교하면 '멀티미디어'가 가장 높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빈칸이 존재한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가정형)

200달러인 핸드폰 = B,C,G

종합품질점수가 가장 높은 스마트폰

공통과 차이를 생각해보면

C보다 G가 더높다. → 옳지 않다.

①, ③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계산이 아닌 가공)

각평가 항목의 최고점은 3점인데, 멀티미디어의 경우 I스마트폰을 제외하고선 모두 3점이다. → 옳다.

②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ㄴ (순위)

가장 저렴한 핸드폰은 H이다.

공통과 차이를 생각해보면, F가 H보다 종합점수가 더 낮다.

→ 옳지않다.

④번 선지 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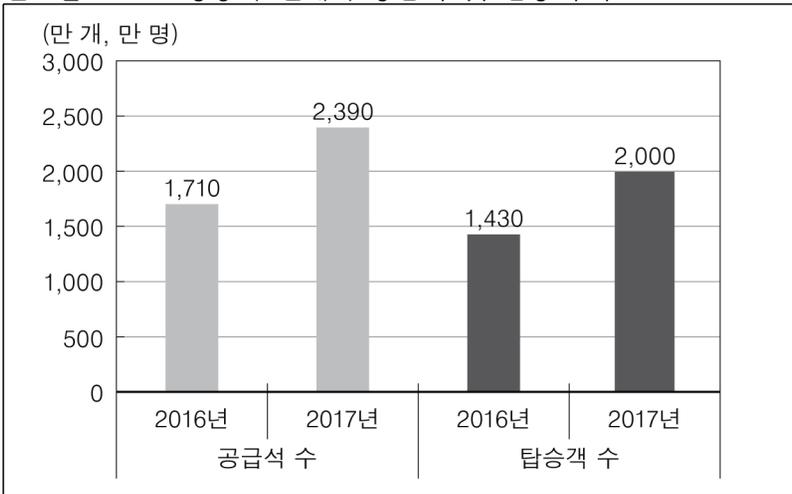
답 : ⑤

문 3. 다음 <표>는 2016년과 2017년 A ~ F 항공사의 공급석 및 탑승객 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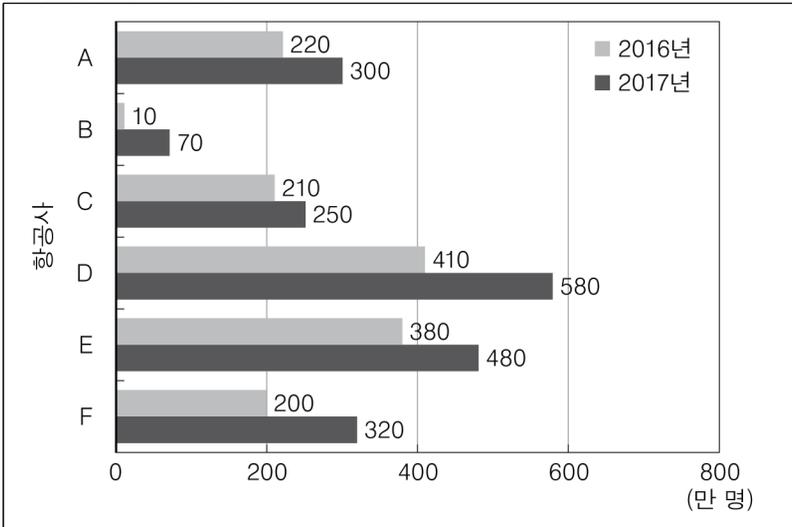
<표> 항공사별 공급석 및 탑승객 수
(단위: 만 개, 만 명)

항공사	구분 연도	공급석 수		탑승객 수	
		2016	2017	2016	2017
A		260	360	220	300
B		20	110	10	70
C		240	300	210	250
D		490	660	410	580
E		450	570	380	480
F		250	390	200	320
전체		1,710	2,390	1,430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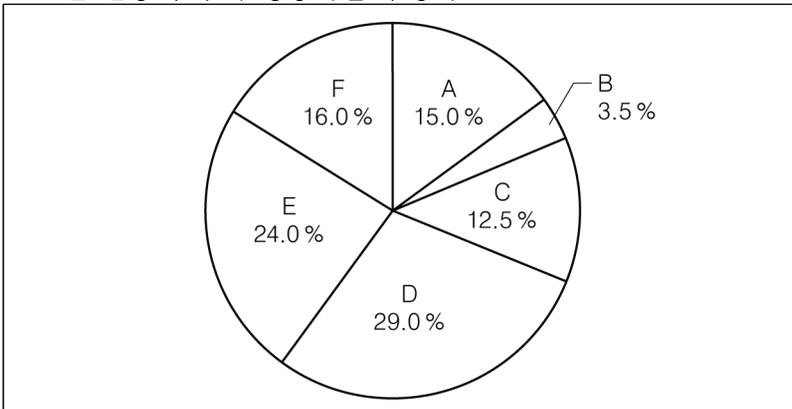
① 연도별 A ~ F 항공사 전체의 공급석 및 탑승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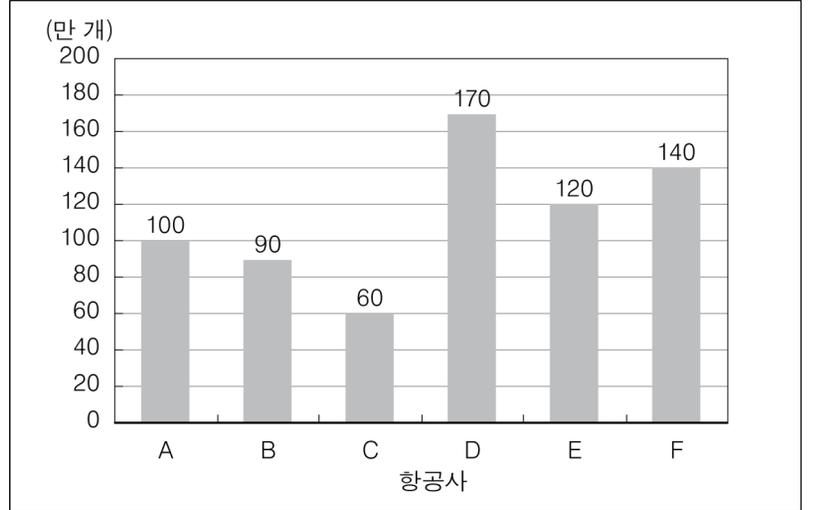
② 항공사별 탑승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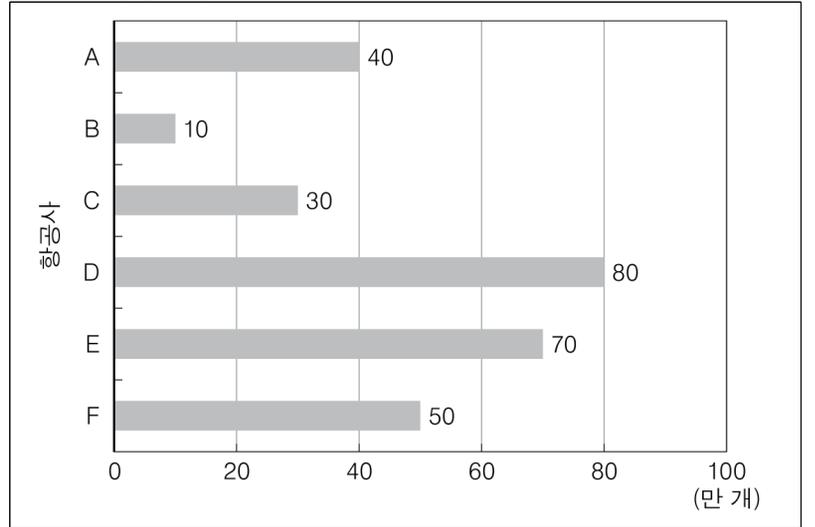
③ 2017년 탑승객 수의 항공사별 구성비



④ 2016년 대비 2017년 항공사별 공급석 수 증가량



⑤ 2017년 항공사별 잔여석 수



* 잔여석 수 = 공급석 수 - 탑승객 수

<문제 유형>

표 → 차트변환형

- ① 통일된 습관을 통하여 자료를 파악하자
- ② 계산의 2단계를 준수하자

<통일된 습관>

전체가 주어졌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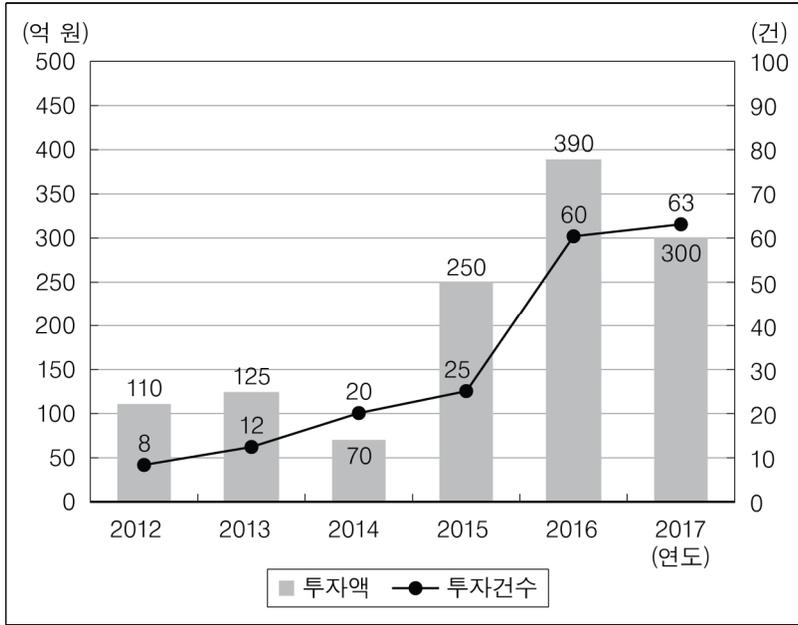
잔여석 = 공급석 - 탑승객수

차트에 나온 정보는 2017년의 잔여석이 아닌 2016년이 잔여석이다. → 옳지 않다.

답 : ⑤

문 4. 다음 <그림>은 A국의 2012 ~ 2017년 태양광 산업 분야 투자액 및 투자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태양광 산업 분야 투자액 및 투자건수



- ① 2013 ~ 2017년 동안 투자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6년이 가장 높다.
- ② 2013 ~ 2017년 동안 투자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7년이 가장 낮다.
- ③ 2012년과 2015년 투자건수의 합은 2017년 투자건수보다 작다.
- ④ 투자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6년이다.
- ⑤ 투자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투자액 = 막대

투자건수 = 꺾은선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막대그래프의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2015년이다,

→ 옳지 않다.

답 : ①

문 5. 다음 <표>는 15개 종목이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국 A ~ D의 메달 획득 결과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국 A ~ D의 메달 획득 결과
(단위: 개)

종목	국가 메달	A국			B국			C국			D국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노르딕복합		3	1	1					1				
루지		3	1	2		1						1	1
바이애슬론		3	1	3				1	3	2			
봅슬레이		3	1			1					1		1
쇼트트랙						1					1	1	3
스노보드			1	1	4	2	1				1	2	1
스켈레톤			1										
스키점프		1	3					2	1	2			
스피드스케이팅							1	2	1	1	1	1	
아이스하키			1		1							1	1
알파인스키					1	1	1	1	4	2			
컬링					1					1	1		
크로스컨트리					1			7	4	3			
프리스타일스키					1	2	1	1			4	2	1
피겨스케이팅		1					2				2		2

* 빈 칸은 0을 의미함.

- ① 동일 종목에서, A국이 획득한 모든 메달 수와 B국이 획득한 모든 메달 수를 합하여 종목별로 비교하면, 15개 종목 중 스노보드가 가장 많다.
- ② A국이 획득한 금메달 수와 C국이 획득한 동메달 수는 같다.
- ③ A국이 루지, 봅슬레이, 스킨슬레톤 종목에서 획득한 모든 메달 수의 합은 C국이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획득한 모든 메달 수보다 많다.
- ④ A ~ D국 중 메달을 획득한 종목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D국이다.
- ⑤ 획득한 은메달 수가 많은 국가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C, B, A, D국 순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종목은 15개이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후보군)

A국이 획득한 모든 메달수 + B국이 획득한 모든 메달수
스노보드 = 9개 → 스노보드보다 더 많은 것은 없다.
스노보드가 가장 크다. → 옳다.

답 : ①

문 6. 다음 <표>는 A국의 흥행순위별 2017년 영화개봉작 정보와 월별 개봉편수 및 관객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A국의 흥행순위별 2017년 영화개봉작 정보
(단위: 천 명)

흥행순위	영화명	개봉시기	제작	관객수
1	버스운전사	8월	국내	12,100
2	님과 함께	12월	국내	8,540
3	동조	1월	국내	7,817
4	거미인간	7월	국외	7,258
5	착한도시	10월	국내	6,851
6	군함만	7월	국내	6,592
7	소년경찰	8월	국내	5,636
8	더 쿼	1월	국내	5,316
9	투수와 야수	3월	국외	5,138
10	퀸스맨	9월	국외	4,945
11	썬더맨	10월	국외	4,854
12	꾸러기	11월	국내	4,018
13	가랑비	12월	국내	4,013
14	동래산성	10월	국내	3,823
15	좀비	6월	국외	3,689
16	행복의 질주	4월	국외	3,653
17	나의 이름은	4월	국외	3,637
18	슈퍼카인드	7월	국외	3,325
19	아이 캔 토크	9월	국내	3,279
20	캐리비안	5월	국외	3,050

* 관객수는 개봉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누적인 값임.

<표 2> A국의 2017년 월별 개봉편수 및 관객수
(단위: 편, 천 명)

월	국내		국외	
	개봉편수	관객수	개봉편수	관객수
1	35	12,682	105	10,570
2	39	8,900	96	6,282
3	31	4,369	116	9,486
4	29	4,285	80	6,929
5	31	6,470	131	12,210
6	49	4,910	124	10,194
7	50	6,863	96	14,495
8	49	21,382	110	8,504
9	48	5,987	123	6,733
10	35	12,964	91	8,622
11	56	6,427	104	6,729
12	43	18,666	95	5,215
전체	495	113,905	1,271	105,969

* 관객수는 당일 상영영화에 대해 월말 집계한 값임.

- ① 흥행순위 1 ~ 20위 내의 영화 중 한 편의 영화도 개봉되지 않았던 달에는 국외제작영화 관객수가 국내제작영화 관객수보다 적다.
- ② 10월에 개봉된 영화 중 흥행순위 1 ~ 20위 내에 든 영화는 국내제작영화뿐이다.
- ③ 국외제작영화 개봉편수는 국내제작영화 개봉편수보다 매달 많다.
- ④ 국외제작영화 관객수가 가장 많았던 달에 개봉된 영화 중 흥행순위 1 ~ 20위 내에 든 국외제작영화 개봉작은 2편이다.
- ⑤ 흥행순위가 1위인 영화의 관객수는 국내제작영화 전체 관객수의 10% 이상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표1>은 <표2>의 상위 20개 영화임
<표2>는 합계가 주어짐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표1>에서 개봉시기가 존재하지 않는 월 = 2월
2월의 경우 국외관객수(6,282) < 국내관객수(8,900)
→ 국외가 국내보다 적다. → 옳다.

보기 ② (단순 확인)

상위 20개 영화중 10월에 개봉된 영화
착한도시, 썬더맨, 동래산성 → 이중 썬더맨은 국외제작이다.
→ 옳지 않다.

답 : ②

문 7. 다음 <표>는 조선시대 A지역 인구 및 사노비 비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지역 인구 및 사노비 비율

구분 조사 년도	인구(명)	인구 중 사노비 비율(%)			
		솔거노비	외거노비	도망노비	전체
1720	2,228	18.5	10.0	11.5	40.0
1735	3,143	13.8	6.8	12.8	33.4
1762	3,380	11.5	8.5	11.7	31.7
1774	3,189	14.0	8.8	12.0	34.8
1783	3,056	14.9	6.7	9.3	30.9
1795	2,359	18.2	4.3	6.5	29.0

* 1) 사노비는 솔거노비, 외거노비, 도망노비로만 구분됨.
2)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보 기>

- ㄱ. A지역 인구 중 도망노비를 제외한 사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조사년도 중 1720년이 가장 높다.
- ㄴ. A지역 사노비 수는 1774년이 1720년보다 많다.
- ㄷ. A지역 사노비 중 외거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720년이 1762년보다 높다.
- ㄹ. A지역 인구 중 솔거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 조사년도 마다 낮아진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인구중 사노비비율의 분모동일 방향 →
인구중 사노비의 분모는 인구이다.
인구중 사노비 비율의 전체가 주오직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도망노비를 제외한 사노비 비율 = 전체 - 도망노비
→ 1720년 = 40 - 11.5 = 28.5%

가장 크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ㄴ (단순 확인)

솔거노비의 비율은 매년 낮아진다.

1762(11.5) → 1774(14.0) 아니다. 증가했다.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계산이 아닌 가공)

$$\frac{\text{외거노비}}{\text{전체}} \rightarrow \frac{\text{외거노비}}{\text{솔거노비} + \text{도망노비}}$$

1720($\frac{10}{30}$), 1762($\frac{8.5}{23.2}$) → 1762가 더 높다.

옳지 않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

문 8. 다음 <표>는 2013 ~ 2017년 '갑'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갑'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
(단위: 조 원, %)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SOC 투자규모	20.5	25.4	25.1	24.4	23.1
총지출 대비 SOC 투자규모 비중	7.8	8.4	8.6	7.9	6.9

- ① 2017년 총지출은 300조 원 이상이다.
- ② 2014년 'SOC 투자규모'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30% 이하이다.
- ③ 2014 ~ 2017년 동안 'SOC 투자규모'가 전년에 비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해는 2017년이다.
- ④ 2014 ~ 2017년 동안 'SOC 투자규모'와 '총지출 대비 SOC 투자규모 비중'의 전년대비 증감방향은 동일하다.
- ⑤ 2018년 'SOC 투자규모'의 전년대비 감소율이 2017년과 동일하다면, 2018년 'SOC 투자규모'는 20조 원 이상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text{총지출} = \frac{\text{SOC 투자규모}}{\text{총지출 대비 SOC 투자규모 비중}}$$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계산이 아닌 가공)

$$\frac{23.1}{6.9/100} > 300 \rightarrow \text{옳다.}$$

둘다 2회로 같다. → 옳지 않다.

보기 ② (올올올-2)

$$\frac{25.4}{20.5} < 1.3 \rightarrow \text{옳다.}$$

보기 ③ (올올올-1)

2017의 감소폭 = 1.3으로 가장 크다.

감소폭은 가장크고, 분모값을 가장 작으므로 당연히 감소율이 가장 크다

보기 ④ (단순확인)

2014 → 2015

투자규모 = 25.4 → 25.1 감소하였다.

총지출~ = 8.4 → 8.6 증가하였다.

→ 옳지 않다.

답 : ④

문 9. 다음 <표>는 물품 A ~ E의 가격에 대한 자료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가), (나), (다)로 가능한 것은?

<표> 물품 A ~ E의 가격

(단위: 원/개)

물품	가격
A	24,000
B	(가)
C	(나)
D	(다)
E	16,000

<조 건>

- '갑', '을', '병'의 배낭에 담긴 물품은 각각 다음과 같다.
 - 갑: B, C, D
 - 을: A, C
 - 병: B, D, E
- 배낭에는 해당 물품이 한 개씩만 담겨있다.
- 배낭에 담긴 물품 가격의 합이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갑', '을', '병' 순이다.
- '병'의 배낭에 담긴 물품 가격의 합은 44,000원이다.

	(가)	(나)	(다)
①	11,000	23,000	14,000
②	12,000	14,000	16,000
③	12,000	19,000	16,000
④	13,000	19,000	15,000
⑤	13,000	23,000	15,000

<문제 유형>

매칭형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조건 ①

$$\text{갑} = B + C + D$$

$$\text{을} = A + C$$

$$\text{병} = B + D + E$$

조건 ②

가격은 갑을병 순이다.

조건 ③

병에 가격 합은 44,000원이다.

<관점의 적용>

$$\text{병의 가격} = B + D + E = 44,000\text{원이다.}$$

E의 가격은 16,000이므로, B+D = 28,000이다.

→ 가+다 28,000가 아닌 선지 ①번 소거

을의 가격이 병의 가격 보다 높다.

$$24,000 + C > 16,000 + B + D$$

$$8,000 + C > B + D$$

C의 최저 가격은 20,000초과다

→ ②, ③, ④번 선지 소거

답 : ⑤

문 10. 다음 <표>와 <그림>은 A국 초.중.고등학생 평균 키 및 평균 체중과 비만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학교급별 평균 키 및 평균 체중 현황

(단위: cm, kg)

학교급	성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키	체중								
초	남	152.1	48.2	151.4	46.8	151.4	46.8	150.4	46.0	150.0	44.7
	여	152.3	45.5	151.9	45.2	151.8	45.1	151.1	44.4	151.0	43.7
중	남	170.0	63.7	169.7	62.3	169.2	61.9	168.9	61.6	168.7	60.5
	여	159.8	54.4	159.8	54.3	159.8	54.1	159.5	53.6	160.0	52.9
고	남	173.5	70.0	173.5	69.4	173.5	68.5	173.7	68.3	174.0	68.2
	여	160.9	57.2	160.9	57.1	160.9	56.8	161.1	56.2	161.1	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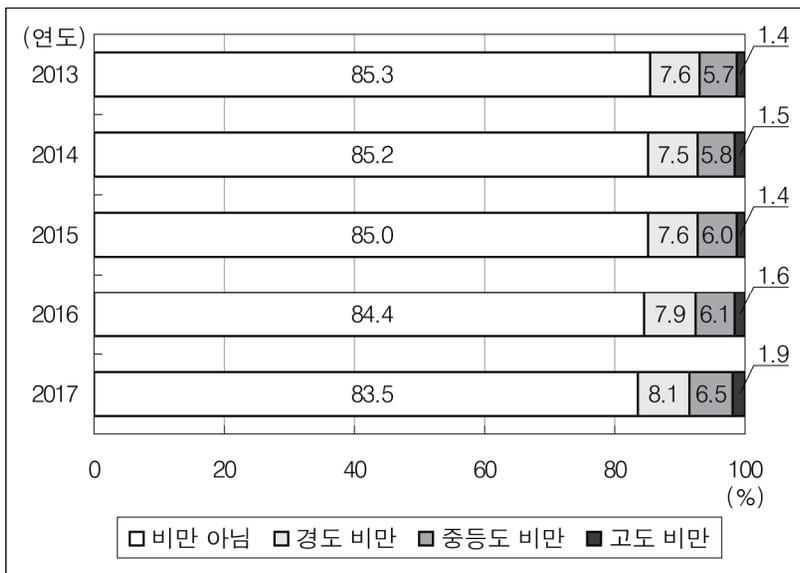
<표 2> 2017년 학교급별 비만학생 구성비

(단위: %)

학교급	구분	성별	비만 아닌 학생	비만학생			학생비만율
				경도 비만	중등도 비만	고도 비만	
초		남	82.6	8.5	7.3	1.6	17.4
		여	88.3	6.5	4.4	0.8	11.7
중		남	81.5	9.0	7.5	2.0	18.5
		여	86.2	7.5	4.9	1.4	13.8
고		남	79.5	8.7	8.4	3.4	20.5
		여	81.2	8.6	7.5	2.7	18.8
전체			83.5	8.1	6.5	1.9	16.5

* '학생비만율'은 학생 중 비만학생(경도 비만 + 중등도 비만 + 고도 비만)의 구성비임.

<그림> 연도별 초.중.고 전체의 비만학생 구성비



<보 기>

- ㄱ. 중학교 여학생의 평균 키는 매년 증가하였다.
- ㄴ. 초.중.고 전체의 '학생비만율'은 매년 증가하였다.
- ㄷ. 고등학교 남학생의 '학생비만율'은 2013년이 2017년보다 작다.
- ㄹ. 2017년 '학생비만율'의 남녀 학생 간 차이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작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1>은 2017 → 2013 역순이다.
 <표2>의 경우 학생비만율 = 경도~고도의 합계이다.
 <표2>에는 전체가 꺾어졌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2013(160.0) → 2014(159.5) 감소하였다. → 옳지 않다.
 ①, ⑤번 선지 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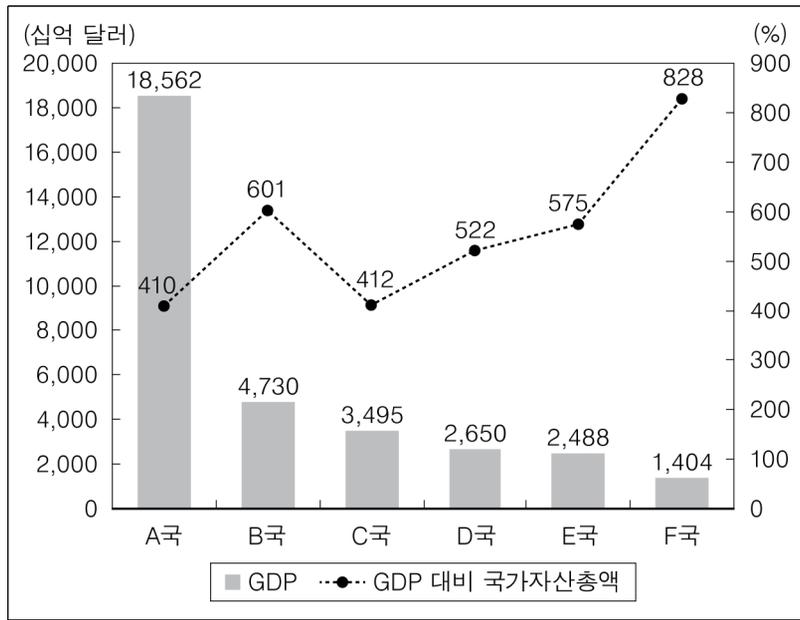
보기 ㄴ (단순 확인)
 학생비만율을 매년 증가하였다 → 비만 아님은 매년 감소했다.
 <그림>의 경우 비만아님이 매년 감소하였다. → 옳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ㄷ, 보기 ㄹ중 선택

보기 ㄷ (극단으로)
 주어진 정보가 없다. → 옳지 않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③

문 11. 다음 <그림>은 A ~ F국의 2016년 GDP와 'GDP 대비 국가자산총액'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A ~ F국의 2016년 GDP와 'GDP 대비 국가자산총액'



$$\ast \text{ GDP 대비 국가자산총액(\%)} = \frac{\text{국가자산총액}}{\text{GDP}} \times 100$$

<보 기>

- ㄱ.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GDP 대비 국가자산총액'이 작다.
- ㄴ. A국의 GDP는 나머지 5개국 GDP의 합보다 크다.
- ㄷ. 국가자산총액은 F국이 D국보다 크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ㄷ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막대 = GDP, 꺾은선 = GDP 대비 국가자산총액
 국가자산총액 = 막대 × 꺾은선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막대와 꺾은선은 비례관계가 아니다. → 옳지 않다.

①, ④번 선지 소거

보기 ㄴ (총합)

$$4370 + 3495 + 2650 + 2448 + 1404 = 14,367$$

A가 나머지의 합계보다 높다. → 옳다.

③번 선지 소거

보기 ㄷ (단순 확인)

국가자산총액

$$F = 1404 \times 828$$

$$D = 2650 \times 522 \text{ (안보인다면 가공하자, } \rightarrow \text{ 사각테크닉)}$$

$$F = 1404 \times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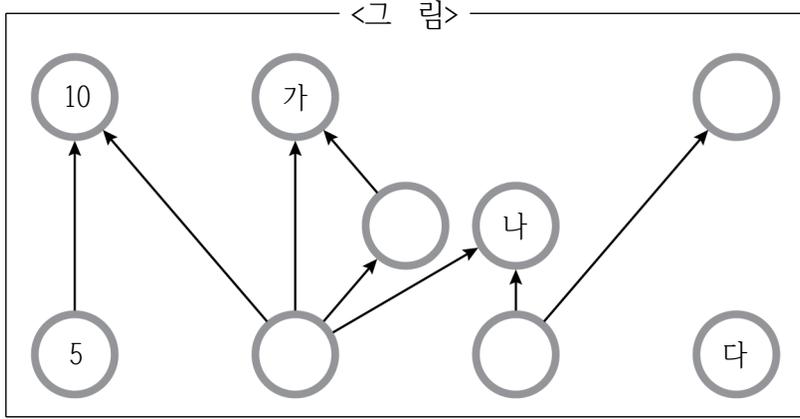
$$D = 1246 \times 522$$

→ D가 높다. (안보인다면 가공하자, → 사각테크닉)

⑤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12. 다음 <그림>은 아래 <규칙>에 따라 2에서 10까지의 서로 다른 자연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수의 합은?



<규칙>

- <그림>에서 2에서 10까지의 자연수는 ○ 안에 한 개씩만 사용되고, 사용되지 않는 자연수는 없다.
- 2에서 10까지의 서로 다른 임의의 자연수 3개를 x, y, z 라고 할 때,
 - $x \rightarrow y$ 는 y 가 x 의 배수임을 나타낸다.
 - 화살표로 연결되지 않은 z 는 z 가 x, y 와 약수나 배수 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 ① 20
- ② 21
- ③ 22
- ④ 23
- ⑤ 24

<문제 유형>

매칭형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x \rightarrow y$ 는 y 가 x 의 배수

(반대화살표는 약수를 생각하자)

<관점의 적용>

10의 약수 = 5와 2

2의 경우 4개의 화살표가 있다.

화살표의 값 = 4, 6, 8

이중에 가 = 8, 나 = 6

다의 경우 약수가 없다. = 소수다, 다 = 7

$6+7+8 = 21$

답 : ②

문 13. 다음 <표>는 7월 1 ~ 10일 동안 도시 A ~ E에 대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예측 날씨와 실제 날씨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도시 A ~ E에 대한 예측 날씨와 실제 날씨

도시	날씨		7.1.	7.2.	7.3.	7.4.	7.5.	7.6.	7.7.	7.8.	7.9.	7.10.
	구분											
A	예측		☀	☁	☀	☔	☀	☀	☔	☔	☀	☁
	실제		☔	☀	☔	☔	☀	☀	☔	☀	☀	☔
B	예측		☀	☔	☀	☔	☁	☀	☔	☀	☀	☀
	실제		☔	☀	☀	☔	☁	☀	☔	☔	☀	☀
C	예측		☔	☀	☔	☔	☀	☔	☀	☔	☔	☔
	실제		☔	☔	☀	☁	☔	☔	☁	☔	☔	☔
D	예측		☔	☔	☀	☀	☀	☔	☔	☀	☀	☔
	실제		☔	☁	☔	☔	☔	☔	☔	☔	☀	☀
E	예측		☔	☀	☀	☔	☔	☔	☀	☁	☀	☔
	실제		☔	☔	☁	☔	☔	☀	☔	☀	☔	☀

* ☀: 맑음, ☁: 흐림, ☔: 비

<보 기>

- ㄱ. 도시 A에서는 예측 날씨가 '비'인 날 실제 날씨도 모두 '비'였다.
- ㄴ. 도시 A ~ E 중 예측 날씨와 실제 날씨가 일치한 일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B이다.
- ㄷ. 7월 1 ~ 10일 중 예측 날씨와 실제 날씨가 일치한 도시 수가 가장 적은 날씨는 7월 2일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ㄷ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1~15일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도시 A의 경우 예측이 비일때, 실제도 비인가?

7.8의 경우 그렇지 않다. → 옳지 않다.

①, ⑤번 선지 소거

보기 ㄴ (단순 확인)

B의 경우 일치한 날자의 개수 = 7.3.~7.7., 7.9.~7.10.

7일 → 불일치의 날 = 3일

불일치가 3개보다 적은게 있는가?

A = 4개, C = 5개, D = 7개, E = 7개

→ B가 가장 많이 맞췄다. → 옳다.

③번 선지 소거

보기 ㄷ (단순 확인)

7월2일의 일치도시수 = 0일

당연히 가장 적다 → 옳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14. 다음 <표>는 1930 ~ 1934년 동안 A지역의 곡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정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A지역의 곡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정보, 천 석)

곡물	구분	연도				
		1930	1931	1932	1933	1934
미곡	재배면적	1,148	1,100	998	1,118	1,164
	생산량	15,276	14,145	13,057	15,553	18,585
맥류	재배면적	1,146	773	829	963	1,034
	생산량	7,347	4,407	4,407	6,339	7,795
두류	재배면적	450	283	301	317	339
	생산량	1,940	1,140	1,143	1,215	1,362
잡곡	재배면적	334	224	264	215	208
	생산량	1,136	600	750	633	772
서류	재배면적	59	88	87	101	138
	생산량	821	1,093	1,228	1,436	2,612
전체	재배면적	3,137	2,468	2,479	2,714	2,883
	생산량	26,520	21,385	20,585	25,176	31,126

- ① 1931 ~ 1934년 동안 재배면적의 전년대비 증감방향은 미곡과 두류가 동일하다.
- ② 생산량은 매년 두류가 서류보다 많다.
- ③ 재배면적은 매년 잡곡이 서류의 2배 이상이다.
- ④ 1934년 재배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큰 곡물은 미곡이다.
- ⑤ 1933년 미곡과 맥류 재배면적의 합은 1933년 곡물 재배면적 전체의 70% 이상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누적 승점

승리시 승점 3점, 패배시 승점 0점, 무승부시 승점 1점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미곡의 재배면적 증감 = 감 감 증 증

두류의 재배면적 증감 = 감 증 증 증

→ 옳지 않다.

보기 ② (단순 확인)

생산량의 경우 두류 > 서류인가?

1932년의 경우 두류(1,143), 서류(1,228)이므로 → 옳지 않다.

보기 ③ (계산이 아닌 가공)

재배면적은 잡곡 > 2 × 서류 인가?

1934년의 잡곡 (208), 서류(138)이므로 → 옳지 않다.

보기 ④ (계산이 아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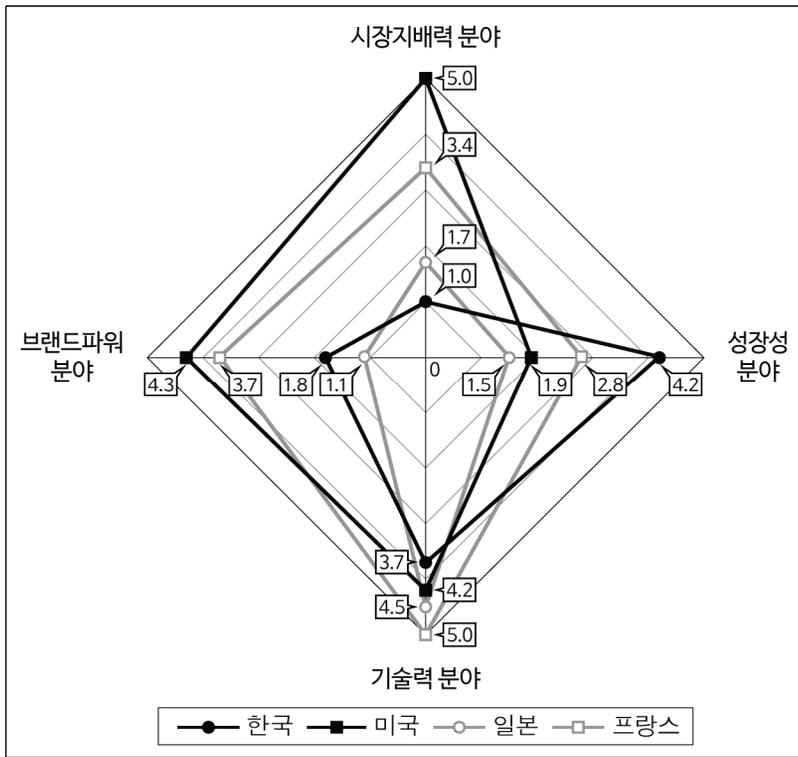
1934년 재배면적당 생산량 = $\frac{\text{생산량}}{\text{재배면적}}$

미곡($\frac{18585}{1164}$), 서류($\frac{2612}{138}$) → 서류가 더 크다. → 옳지 않다.

답 : ⑤

문 15. 다음 <그림>은 주요국(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이 화장품산업 경쟁력 4대 분야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주요국의 화장품산업 경쟁력 4대 분야별 점수



- ① 기술력 분야에서는 한국의 점수가 가장 높다.
- ② 성장성 분야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시장지배력 분야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다.
- ③ 브랜드파워 분야에서 각국이 획득한 점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는 3 이하이다.
- ④ 미국이 4대 분야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은 프랑스가 4대 분야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보다 크다.
- ⑤ 시장지배력 분야의 점수는 일본이 프랑스보다 높지만 미국보다는 낮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기술력분야에서 가장 높은 것은 프랑스이다. → 옳지 않다.

보기 ② (단순 확인)

성장성에서 가장 높은건 ● 시장지배력에서는 4위이다.
→ 옳지 않다.

보기 ③ (단순 확인)

브랜드 파워의 최댓값 = 4.3, 최솟값 = 1.1
두 개의 차이 = 3.2이다. → 옳지 않다.

보기 ④ (공통과 차이)

미국의 4개의 합계와, 프랑스의 합계

미국의 경우 시장지배력, 브랜드파워에서 프랑스보다 높다.

프랑스의 경우 성장성분야에서 미국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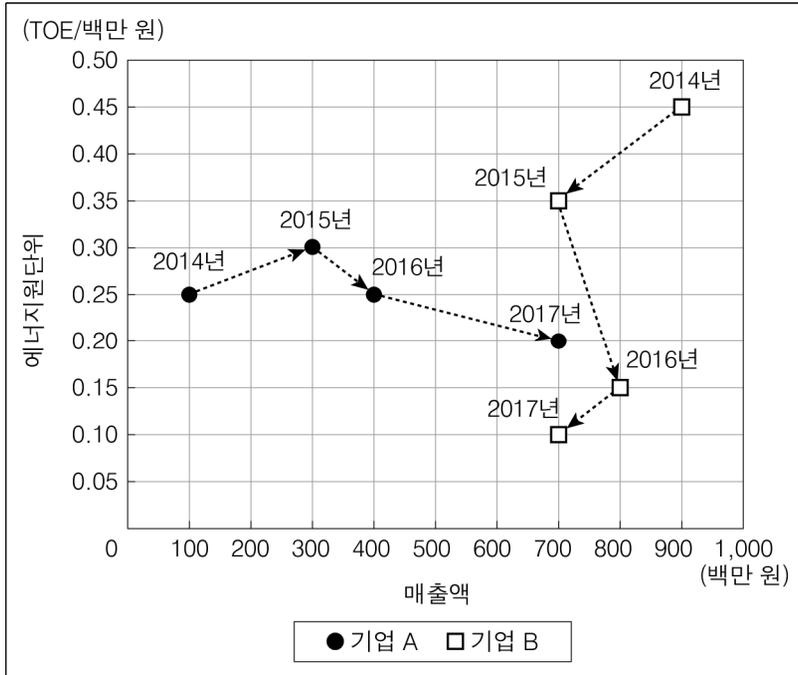
시장지배력과 브랜드 파워가 성장성분야를 채워 줄 수 있을까?

→ 충분히 그럴만하다. 즉, 미국이 더 높다. → 옳다.

답 : ④

문 16. 다음 <그림>은 기업 A, B의 2014 ~ 2017년 에너지원단위 및 매출액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기업 A, B의 2014 ~ 2017년 에너지원단위 및 매출액



※ 에너지원단위(TOE/백만 원) = $\frac{\text{에너지소비량}(TOE)}{\text{매출액(백만 원)}}$

<보 기>

- ㄱ. 기업 A, B는 각각 에너지원단위가 매년 감소하였다.
- ㄴ. 기업 A의 에너지소비량은 매년 증가하였다.
- ㄷ. 2016년 에너지소비량은 기업 B가 기업 A보다 많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ㄴ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에너지소비량 = $x \times y$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기업 A와 B의 y값은 매년 감소하였나?

A의 경우 14년 → 15년의 y값이 증가하였다. → 옳지 않다.

①, ④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ㄴ

보기 ㄴ (단순 확인)

기업 A의 면적은 매년 증가하였나?

매년 증가하였다. → 옳다. (증가가 안보인다면 사각테크닉)

③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단순 확인)

2016년 기업 B의 면적은 기업 A의 면적보다 큰가?

옳다. (증가가 안보인다면 사각테크닉)

②번 선지 소거

답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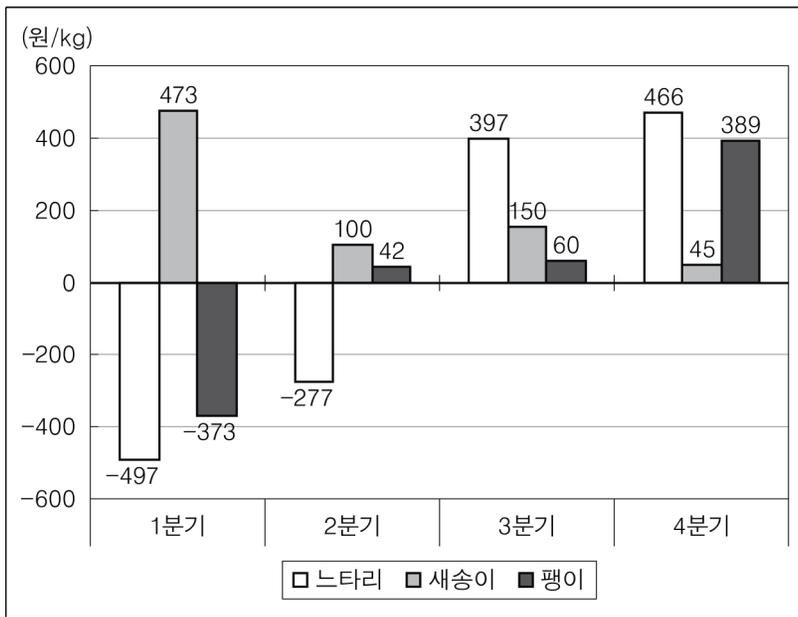
문 17. 다음 <표>와 <그림>은 A지역 2016년 주요 버섯의 도.소매가와 주요 버섯 소매가의 전년 동분기 대비 등락액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6년 주요 버섯의 도.소매가

(단위: 원/kg)

버섯종류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구분					
느타리	도매		5,779	6,752	7,505	7,088
	소매		9,393	9,237	10,007	10,027
새송이	도매		4,235	4,201	4,231	4,423
	소매		5,233	5,267	5,357	5,363
팽이	도매		1,886	1,727	1,798	2,116
	소매		3,136	3,080	3,080	3,516

<그림> 2016년 주요 버섯 소매가의 전년 동분기 대비 등락액



<보 기>

- ㄱ. 2016년 매분기 '느타리' 1kg의 도매가는 '팽이' 3kg의 도매가보다 높다.
- ㄴ. 2015년 매분기 '팽이'의 소매가는 3,000원/kg 이상이다.
- ㄷ. 2016년 1분기 '새송이'의 소매가는 2015년 4분기에 비해 상승했다.
- ㄹ. 2016년 매분기 '느타리'의 소매가는 도매가의 1.5배 미만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2015년소매가 + <그림> = <표>이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2016년 매분기 $\frac{\text{팽이}}{\text{느타리}} > 3$ 인가? → 옳다.

③, ④,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ㄴ (단순 확인)

2015년 팽이의 소매가 = <표> - <그림>

ex) 2015년 1분기의 경우 = 3,136 - (-373) > 3,000

매년 3,000이상이다. → 옳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

문 18. 다음 <표>는 A ~ E 면접관이 '갑' ~ '정' 응시자에게 부여한 면접 점수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 ~ '정' 응시자의 면접 점수

(단위: 점)

면접관 \ 응시자	갑	을	병	정	범위
A	7	8	8	6	2
B	4	6	8	10	()
C	5	9	8	8	()
D	6	10	9	7	4
E	9	7	6	5	4
중앙값	()	()	8	()	-
교정점수	()	8	()	7	-

- ※ 1) 범위: 해당 면접관이 각 응시자에게 부여한 면접 점수 중 최댓값에서 최솟값을 뺀 값
 2) 중앙값: 해당 응시자가 A ~ E 면접관에게 받은 모든 면접 점수를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값
 3) 교정점수: 해당 응시자가 A ~ E 면접관에게 받은 모든 면접 점수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면접 점수의 산술 평균값

<보 기>

- ㄱ. 면접관 중 범위가 가장 큰 면접관은 B이다.
 ㄴ. 응시자 중 중앙값이 가장 작은 응시자는 '정'이다.
 ㄷ. 교정점수는 '병'이 '갑'보다 크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ㄴ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범위> =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값
 <중앙값> = 크기순을 기준으로 가운데 값
 <교정점수> = 중간3개의 평균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범위가 가장 크다 = 최대값 - 최소값이 가장크다
 B의 경우 10-4 = 6
 6보다 큰 면접관은 없다.
 ②, ④번 선지 소거

보기 ㄴ (단순 확인)
 중앙값 = 가운데의 값
 정의 중앙값 = 10, 8, 7, 6, 5 → 7이다.
 갑의 경우 9, 7, 6, 5, 4 → 6으로 정보다 작다.
 옳지 않다.
 ⑤번 선지 소거

보기 ㄷ (단순 확인)
 교정점수 = 중간 3개의 평균
 병의 교정 점수 = 9와 6을 제외한 평균 = 8
 갑의 교정 점수 = 9와 4를 제외한 평균 = 8↓
 옳다.
 ①번 선지 소거

답 : ③

문 19. 다음 <표>는 2000년과 2013년 한국, 중국, 일본의 재화 수출액 및 수입액 자료이고, <용어 정의>는 무역수지와 무역특화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한국, 중국, 일본의 재화 수출액 및 수입액
(단위: 억 달러)

연도	국가 재화	한국		중국		일본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2000	원자재	578	832	741	1,122	905	1,707
	소비재	117	104	796	138	305	847
	자본재	1,028	668	955	991	3,583	1,243
2013	원자재	2,015	3,232	5,954	9,172	2,089	4,760
	소비재	138	375	4,083	2,119	521	1,362
	자본재	3,444	1,549	12,054	8,209	4,541	2,209

<용어 정의>

-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 무역수지 값이 양(+)이면 흑자, 음(-)이면 적자이다.
- 무역특화지수 = $\frac{\text{수출액} - \text{수입액}}{\text{수출액} + \text{수입액}}$
 -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클수록 수출경쟁력이 높다.

<보 기>

- ㄱ. 2013년 한국, 중국, 일본 각각에서 원자재 무역수지는 적자이다.
- ㄴ. 2013년 한국의 원자재, 소비재, 자본재 수출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50% 이상 증가하였다.
- ㄷ. 2013년 자본재 수출경쟁력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ㄷ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무역수지의 경우

- 수출액 > 수입액 = 흑자
- 수출액 < 수입액 = 적자

무역특화지수가 클수록 수출경쟁력이 높다.

$$\frac{\text{수출액} - \text{수입액}}{\text{수출액} + \text{수입액}} = \frac{B}{A} \rightarrow \frac{B+A}{A} = \frac{2\text{수출액}}{\text{수출액} + \text{수입액}}$$

$$\frac{2 \times \text{수출액}}{\text{수출액} + \text{수입액}} \rightarrow \frac{2 \times \text{수출액}}{\text{수출액} + \text{수입액} - \text{수출액}} \rightarrow \frac{\text{수출액}}{\text{수입액}}$$

무역특화지수가 크면, $\frac{\text{수출액}}{\text{수입액}}$ 이 크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 무역수지는 적자다 → 수입액 > 수출액이다.
- 원자재의 경우 모두 수입액이 더크다 → 옳다.
- ②, ⑤번 선지 소거

보기 ㄴ (올올올-2)

$$\text{원자재}(\frac{2015}{578} > 1.5), \text{소비재}(\frac{138}{117} < 1.5)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단순 확인)

$$\text{수출경쟁력} \rightarrow \frac{\text{수출액}}{\text{수입액}} \text{ 비교}$$

$$2013\text{년 자본재 일본}(\frac{4541}{2209}), \text{한국}(\frac{3444}{1549}) \rightarrow \text{한국이 더 크다.}$$

옳지 않다.

③번 선지 소거

답 : ①

문 20. 다음 <표>는 A ~ D국의 성별 평균소득과 대학진학률의 격차 지수만으로 계산한 '간이 성평등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 ~ D국의 성별 평균소득, 대학진학률 및 '간이 성평등지수'
(단위: 달러, %)

국가	평균소득			대학진학률			간이 성평등지수
	여성	남성	격차 지수	여성	남성	격차 지수	
A	8,000	16,000	0.50	68	48	1.00	0.75
B	36,000	60,000	0.60	()	80	()	()
C	20,000	25,000	0.80	70	84	0.83	0.82
D	3,500	5,000	0.70	11	15	0.73	0.72

- ※ 1) 격차지수는 남성 항목값 대비 여성 항목값의 비율로 계산하며, 그 값이 1을 넘으면 1로 함.
 2) '간이 성평등지수'는 평균소득 격차지수와 대학진학률 격차지수의 산술 평균임.
 3) 격차지수와 '간이 성평등지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보 기>

- ㄱ. A국의 여성 평균소득과 남성 평균소득이 각각 1,000달러씩 증가하면 A국의 '간이 성평등지수'는 0.80 이상이 된다.
 ㄴ. B국의 여성 대학진학률이 85%이면 '간이 성평등지수'는 B국이 C국보다 높다.
 ㄷ. D국의 여성 대학진학률이 4%p 상승하면 D국의 '간이 성평등지수'는 0.80 이상이 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ㄷ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격차지수($\frac{\text{여성}}{\text{남성}}$)의 최대값은 1(여성이 높으면 1)이다.

간이 성평등지수 = 평균소득과 대학진학률의 평균이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간이 성평등지수가 0.8이상이라면,

대학진학률 격차지수가 1.0이므로

평균소득의 격차지수가 0.6이상이어야 한다.

1천달러씩 증가하면, 0.6 이상이 되는가?

$$\frac{9000}{17000} = \frac{6000 + 3000}{10000 + 7000} < 0.6 \text{ 옳지 않다.}$$

①, ④,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 중 선택

보기 ㄷ (단순 확인)

D에서 여성 대학진학률이 4%상승하면,

D의 대학진학률 격차지수 = 1

$$(1 + 0.7)/2 > 0.80 \rightarrow \text{옳다.}$$

②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 중 선택

답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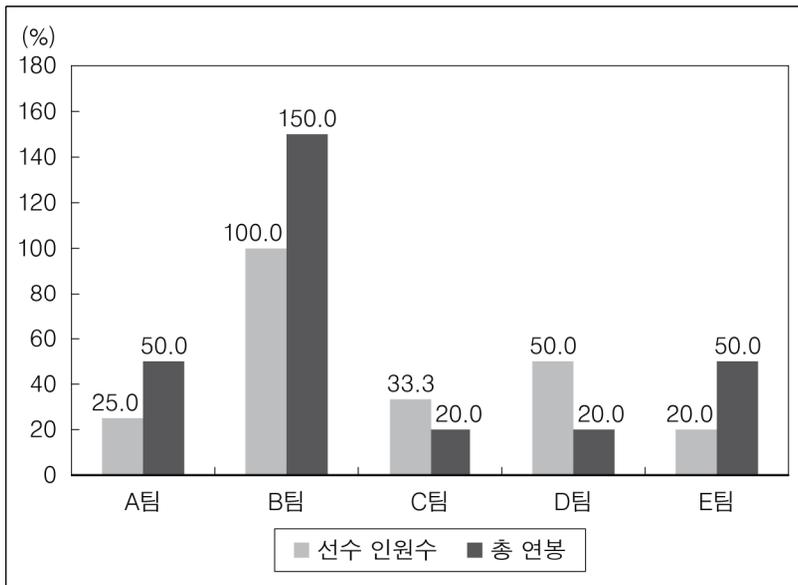
문 21. 다음 <표>와 <그림>은 2018년 테니스 팀 A ~ E의 선수 인원 수 및 총 연봉과 각각의 전년대비 증가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8년 테니스 팀 A ~ E의 선수 인원수 및 총 연봉
(단위: 명, 억 원)

테니스 팀	선수 인원수	총 연봉
A	5	15
B	10	25
C	8	24
D	6	30
E	6	24

* 팀 선수 평균 연봉 = $\frac{\text{총 연봉}}{\text{선수 인원수}}$

<그림> 2018년 테니스 팀 A ~ E의 선수 인원수 및 총 연봉의 전년대비 증가율



* 전년대비 증가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① 2018년 '팀 선수 평균 연봉'은 D팀이 가장 많다.
- ② 2018년 전년대비 증가한 선수 인원수는 C팀과 D팀이 동일하다.
- ③ 2018년 A팀의 '팀 선수 평균 연봉'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④ 2018년 선수 인원수가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팀은 총 연봉도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 ⑤ 2017년 총 연봉은 A팀이 E팀보다 많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그림>은 전년대비 증가율이다. (폭과 율을 떠올리자)

$$\text{전년도 값} = \frac{\text{현재 값}}{1 + \text{증가율}}$$

$$\text{증가폭} = \frac{\text{증가율}}{1 + \text{증가율}} \times \text{현재 값}$$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계산이 아닌 가공)

$$\text{팀평균 연봉} = \frac{\text{총연봉}}{\text{선수인원수}}$$

2018년 D팀($\frac{30}{6}=5$) → 5보다 큰 것은 없다. → 옳다.

보기 ② (폭과 율)

$$\text{C팀의 증가폭} = \frac{33.3}{133.33} \times 8 = \frac{1}{4} \times 8 = 2$$

$$\text{D팀의 증가폭} = \frac{50}{150} \times 6 = \frac{1}{3} \times 6 = 2$$

(※ 33.3% = $\frac{1}{3}$, 50% = $\frac{1}{2}$ 모르면 외우자.)

→ 동일하다.

보기 ③ (계산이 아닌 가공)

팀 선수 평균 연봉이 증가하려면?

선수의 증가율보다 연봉의 증가율이 크면된다.

A의 경우 $\frac{\text{연봉 증가율}}{\text{선수 증가율}} = \frac{50}{25} \rightarrow$ 연봉 증가율이 더 크다.

→ 옳다.

보기 ④ (폭과 율)

$$\text{증가폭이 가장 크려면? } \frac{\text{증가율}}{1 + \text{증가율}} \times \text{현재 값}$$

현재값이 크거나, 증가율이 커야한다.

인원의 경우 B가 현재값과 증가율이 모두 가장크다

그렇다면 B의 연봉도 가장 클까?

$$\frac{150}{250} \times 25 = 15 \rightarrow \text{연봉도 가장크다.} \rightarrow \text{옳다.}$$

(※ 굳이 풀어야 할까?)

답 : ⑤

문 22. 다음 <표>는 A ~ D국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A ~ D국의 연구개발비

연도	구분	국가			
		A	B	C	D
2016	연구개발비(억 달러)	605	4,569	1,709	1,064
	GDP 대비(%)	4.29	2.73	3.47	2.85
2015	민간연구개발비 : 정부연구개발비	24 : 76	35 : 65	25 : 75	30 : 70

* 연구개발비 = 정부연구개발비 + 민간연구개발비

<보고서>

A ~ D국 모두 2015년에 비하여 2016년 연구개발비가 증가하였지만, A국은 약 3% 증가에 불과하여 A ~ D국 평균 증가율인 6%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16년에 A국은 정부연구개발비 대비 민간연구개발비 비율이 가장 작다. 이는 2014 ~ 2016년 동안, A국 민간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액이 매년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보 기>

- ㄱ. 2013 ~ 2015년 A ~ D국 전년대비 GDP 증가율
- ㄴ. 2015 ~ 2016년 연도별 A ~ D국 민간연구개발비
- ㄷ. 2013 ~ 2016년 연도별 A국 민간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액
- ㄹ. 2014 ~ 2015년 A ~ D국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증가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필요 형

- ① 이미 주어진 정보부터 소거하자

<통일된 습관>

2016년의 경우 연구개발비와 GDP에 대한 정보
2015년의 경우 민간연구비와 개발연구비의 비중의 정보

<관점의 적용>

이미 주어진 정보는 없음.

A ~ D국 모두 2015년에 비하여 2016년 연구개발비가 증가하였지만, → 보기 ㄴ

(2015년의 경우 민간연구비의 비중을 알고 있기에, 민간연구개발비를 통하여 전체 연구개발비를 구할 수 있다.)

이는 2014 ~ 2016년 동안, A국 민간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액이 매년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보기 ㄷ

답 : ③

문 23. 다음 <표>는 근무지 이동 전 '갑' 회사의 근무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근무지 이동 지침>에 따라 이동한 후 근무지별 인원수로 가능한 것은?

<표> 근무지 이동 전 '갑' 회사의 근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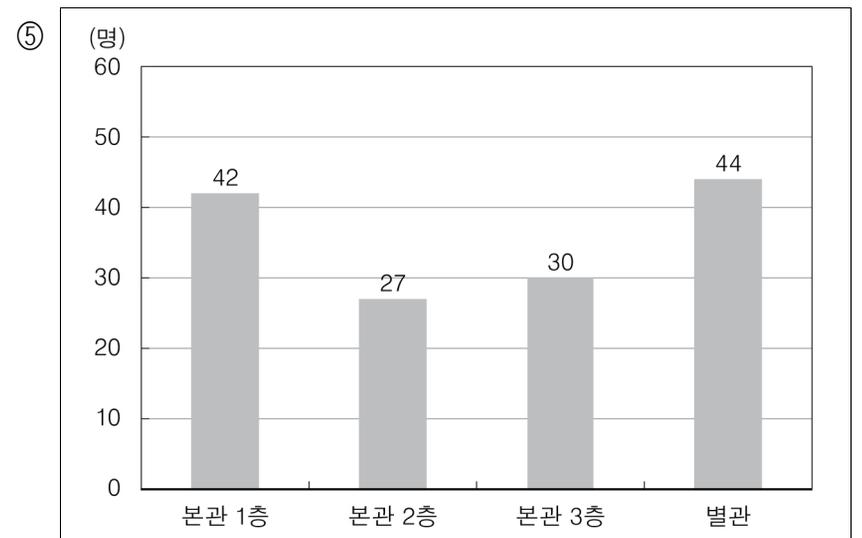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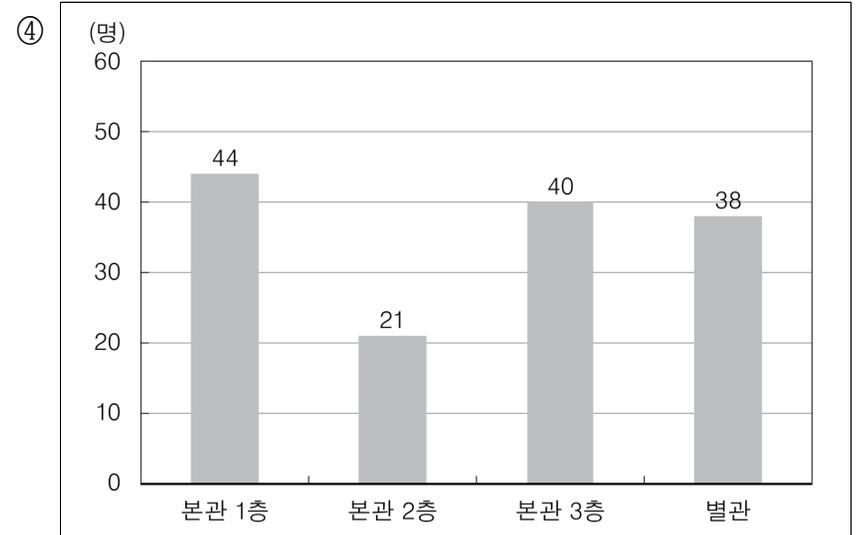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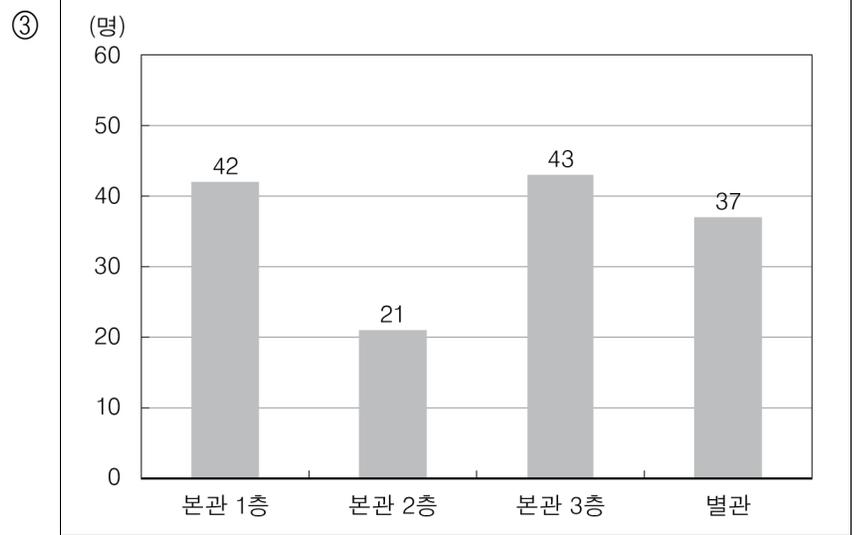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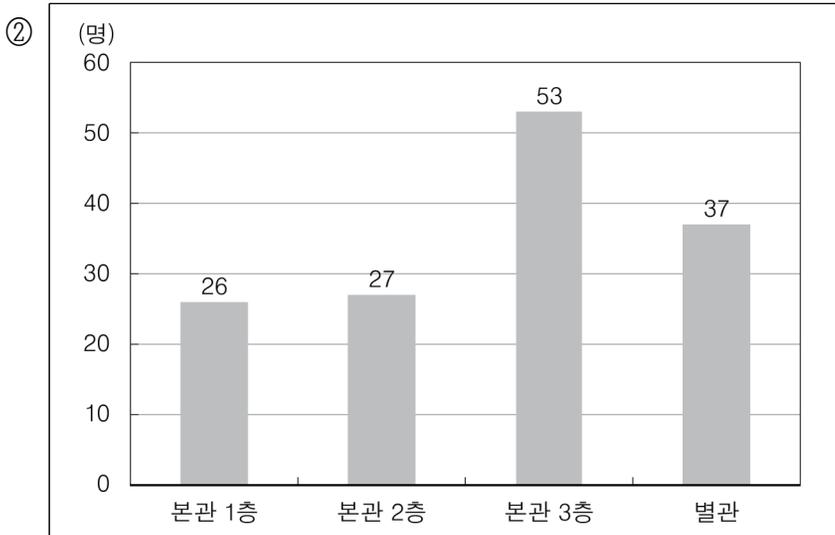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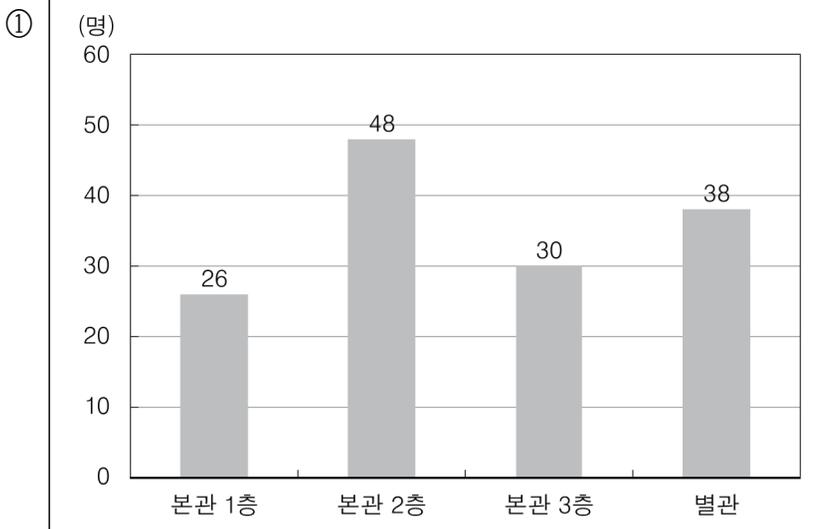
(단위: 명)

근무지	팀명	인원수
본관 1층	인사팀	10
	지원팀	16
	기획1팀	16
본관 2층	기획2팀	21
	영업1팀	27
본관 3층	영업2팀	30
	영업3팀	23
별관	-	0
전체		143

- * 1) '갑' 회사의 근무지는 본관 1, 2, 3층과 별관만 있음.
2) 팀별 인원수의 변동은 없음.

<근무지 이동 지침>

- 본관 내 이동은 없고, 인사팀은 이동하지 않음.
- 팀별로 전원 이동하며, 본관에서 별관으로 2개 팀만 이동함.
- 1개 층에서는 최대 1개 팀만 별관으로 이동할 수 있음.
- 이동한 후 별관 인원수는 40명을 넘지 않도록 함.



<문제 유형>

매칭형

-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 조건 ① 인사팀은 이동X 본관내의 이동X → 보기 ④번 소거
본관1층은 10 16 16으로 구성됐기에 44는 불가
조건 ② 본관에서 별관으로 2팀이동 → 보기 ①번 소거
별관의 38명은 2팀의 이동조합으로 가능하지 않다.
조건 ③ 1개 팀만 이동한다 → 보기 ③번 소거
→ 1개팀이 이동했으면 43은 불가하다
조건 ④ 별관인원은 40명이하 → 보기 ⑤번 소거
(* 조건을 순서대로 풀어야할까?)

답 : ②

문 24. 다음 <표 1>은 창의경진대회에 참가한 팀 A, B, C의 '팀 인원수' 및 '팀 평균점수'이며, <표 2>는 <표 1>에 기초하여 '팀 연합 인원수' 및 '팀 연합 평균점수'를 각각 산출한 자료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팀 인원수 및 팀 평균점수
(단위: 명, 점)

팀	A	B	C
인원수	()	()	()
평균점수	40.0	60.0	90.0

- * 1) 각 참가자는 A, B, C팀 중 하나의 팀에만 속하고, 개인별로 점수를 획득함.
- 2) 팀 평균점수 = $\frac{\text{해당 팀 참가자 개인별 점수의 합}}{\text{해당 팀 참가자 인원수}}$

<표 2> 팀 연합 인원수 및 팀 연합 평균점수
(단위: 명, 점)

팀 연합	A + B	B + C	C + A
인원수	80	120	(가)
평균점수	52.5	77.5	(나)

- * 1) A + B는 A팀과 B팀, B + C는 B팀과 C팀, C + A는 C팀과 A팀의 인원을 합친 팀 연합임.
 - * 2) 팀 연합 평균점수 = $\frac{\text{해당 팀 연합 참가자 개인별 점수의 합}}{\text{해당 팀 연합 참가자 인원수}}$
- | | | |
|---|-----|------|
| | (가) | (나) |
| ① | 90 | 72.5 |
| ② | 90 | 75.0 |
| ③ | 100 | 72.5 |
| ④ | 100 | 75.0 |
| ⑤ | 110 | 72.5 |

<문제 유형>

매칭형

-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표1>을 이용하여 <표2>의 가중평균값을 구하자

<관점의 적용>

팀 연합 A+B의 경우

	A	B	A+B
평균점수	40	60	52.5

→ 공통 40소거 → $20 \times B = 12.5 \times \text{전체}$

$$B = \frac{12.5}{20} \times \text{A+B의 전체인원이 80명이므로, } \frac{12.5}{20} \times 80 = 50\text{명}$$

$$A = 30\text{명}$$

팀 연합 B+C의 인원이 120명이므로 C의 인원 = 70명

팀 연합 C+A의 경우

	A	C	A+C
평균점수	40	90	?
인원	30	70	100

→ 공통 40을 소거 → $50 \times \frac{70}{100} = \text{전체} - 40 \rightarrow \text{전체} = 75$

→ (가) = 인원 = 100명, (나) = 평균점수 = 7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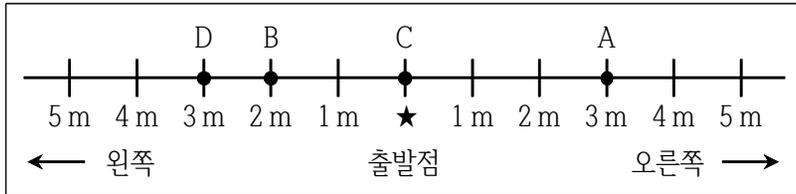
답 : ④

문 25. 다음 <표>는 참가자 A ~ D의 회차별 가위.바위.보 게임 기록 및 판정이고, <그림>은 아래 <규칙>에 따른 5회차 게임 종료 후 A ~ D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가), (나), (다)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가위.바위.보 게임 기록 및 판정

회차 구분 참가자	1		2		3		4		5	
	기록	판정	기록	판정	기록	판정	기록	판정	기록	판정
A	가위	승	바위	승	보	승	바위	()	보	()
B	가위	승	(가)	()	바위	패	가위	()	보	()
C	보	패	가위	패	바위	패	(나)	()	보	()
D	보	패	가위	패	바위	패	가위	()	(다)	()

<그림> 5회차 게임 종료 후 A ~ D의 위치



<규칙>

- A ~ D는 모두 출발점(★)에서 1회차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2회차부터는 직전 회차 게임 종료 후 각자의 위치에서 게임을 한다.
- 각 회차의 판정에 따라 지거나 비기면 이동하지 않고, 가위로 이긴 사람은 왼쪽으로 3m, 바위로 이긴 사람은 오른쪽으로 1m, 보로 이긴 사람은 오른쪽으로 5m를 각각 이동하여 해당 회차 게임을 종료한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가위 | 바위 | 보 |
| ② | 가위 | 보 | 바위 |
| ③ | 바위 | 가위 | 보 |
| ④ | 바위 | 보 | 가위 |
| ⑤ | 보 | 바위 | 가위 |

<문제 유형>

매칭형

-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A = 오른쪽 3m, B = 왼쪽 2m, C = 0m D = 왼쪽 3m

가위로 승리 = 왼쪽 3m

바위로 승리 = 오른쪽 1m

보로 승리 = 오른쪽 5m

<관점의 적용>

A의 경우 가위로 승리, 바위로 승리 보로 승리 결과 오른쪽 3m 즉, 4회차와 5회차는 패배 또는 무승부이다.

B의 경우 가위로 승리 = 결과 왼쪽 3m

즉, 1번은 바위로 이겨야한다. → 가는 바위이다.

→ ①, ②, ⑤번 선지 소거

4회차와 5회차는 모두 패배 또는 무승부이다.

C의 경우 1~3회차까지 이동 없음,

4회차와 5회차도 이동없어야한다. 즉, 패배 또는 무승부이다.

A,B,C 모두 4,5회차를 패배 또는 무승부해야한다.

만약 (나)가 가위라면 A가 승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보이다.

③번 선지 소거

(※ 조건을 순서대로 풀어야할까?)

답 : ④